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주요 손보사, FY2009 경상이익 흑자 기록

- 최근 집계된 FY2009 실적에 따르면,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은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보증보험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 개선 효과 등으로 경상이익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.
 - FY2009(2009년 4월~2010년 3월) 총수입보험료는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홀딩스가 작년에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콘솔리데이티드 실적 계상 효과로 전년대비 7.4%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로 주요 손해보험회사들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올해 4월 출범한 MS&AD(미쓰이스미토모해상+아이오이손보+닛세이도와손보)와 NKSJ(손해보험재팬+니혼고아손보)는 주력종목인 자동차·화물보험 침체로 총수입보험료 부문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으나, 작년 실적 부진을 이끌었던 금융보증보험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크게 개선되면서 경상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함.

- 업계에서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10에는 성장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결국 비용절감 및 해외사업 투자가 성장성 회복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.
 - 전문가들은 손해보험산업이 저출산·고령화 및 경기부진이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으나, 올해에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와 수출 관련 기업들의 회복 등에 힘입어 총수입보험료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- 또한 업계 판도가 이른바 ‘3메가 체제(도쿄해상홀딩스, MS&AD, NKSJ)’로 재편되면서 사업비 절감과 같은 합병 시너지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고, 대형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는 등 성장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일본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, FujiSankei Business I, 6/15)